

■ 中 후진타오 주석 20일부터 인도 방문

‘친디아’ 다시 손잡나

〈Chindia: 중국+인도〉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부인이 16일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후 주석은 APEC 총회에 참석한 뒤 오는 20일부터 인도를 방문한다. /연합뉴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0일부터 23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한다. 중국 주석의 인도 방문은 1996년의 장쩌민(江澤民) 이후 10년 만이다.

후 주석은 뉴델리에 도착한 다음날인 21일 만모한 싱 총리와 만나 통상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 북한 핵실험 사태, 유엔개혁 등 양자적, 지역적, 국제적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교류확대를 위해 고위급 인사들이 공동 참여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외무장관 간의 핫라인 개설, 양자투자보호협정(BIPA) 등 12개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와 별도로 콜카타의 영사관 개설을 희망하고 있지만 인도는 분

리주의 운동이 활발한 동북부 지역의 안보적 민감성을 들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 정부는 그러면서도 후 주석에게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요청키로 하는 등 최상급 대우를 할 계획이다. 인도는 자국과의 ‘특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의 원수에게만 양원 합동회의 연설 기회를 준다. 지난 3월에는 ‘핵’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갖고 왔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이 기회를 제공하려 했으나 좌파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1999년 20억달러에 못미쳤던 인도와 중국의 교역액은 올해 200억달러, 2010년에 5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후 주석은 정상회담 후 경제 중심지인 뭄바이로 가서 세계 인사들을 만나고 인도가 자랑하는 세계적 문화유산인 타지마할도 둘러볼 계획이다.

인, 양원회의 연설 요청 등 국빈 대우

44년간 폐쇄된 ‘비단길’도 다시 열려

국경분쟁·FTA협약 등 난제 해결이 과제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해 4월 뉴델리에서 싱 총리와 회담을 열어 1962년의 전쟁 이후 계속돼 오던 걸려온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국은 올해 인도에서 ‘우정의 해’ 행사를 주최하면서 다양한 자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두 나라는 경제교류 확대 차원에서 지난 7월 44년간 폐쇄됐던 옛 비단길인 ‘나투라’ 고개길도 다시 열었다. 내년에는 중국에서 ‘우정의 해’ 행사가 열리고 싱 총리는 4~5월께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도 정부 주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국경분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방향성만 확인하는데 그치는 등 특별한 성과가 없는 행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PEC 총회에 참가한 각국 외무장관들이 16일 베트남 하노이 회의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가운데 여성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 장관이며 그 왼쪽이 유명한 외교차관이다. /연합뉴스

“6자회담 구체적 성과 내야”

APEC 외교장관들 촉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 참석중인 각국 외교장관들은 16일 차기 6자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APEC에 참석 중인 21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오전 하노이 영빈관에서 비공식

회의를 갖고 12월 초 중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북핵 6자회담과 관련, 이 같이 뜻을 모으고 북핵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과 9.19공공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한 정부 당국자는 “장관들 대부분이 북핵문제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주로 6자회담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회담 복구에 따른 회담 재개에 그쳐선 안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 장관대리로 참석한 유명한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유 차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낸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열린 6자회담에서 결과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의 신뢰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데 참가한 장관들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中, 대북 석유공급 중단 안했다”

방북 美 전문가 “북 핵실험 성공적...경제 활기”

중국을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석유나 식량의 대북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전문가들이 15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은 ‘안락하지는 않았지만 성공적’이었으며, 중국이 마카오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동결계좌를 해제하고 미국이 이를 묵인한다는 합의에 따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다.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원(KIEI) 소장과 지

그프리드 헤커 전(前) 미국립핵연료연구소 소장,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날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방북 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방북 길에 중국에 들러 외교부 관리들에게 대북 중유공급 중단 보도가 사실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끊지 않았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헤커 전 소장은 전했다.

미국 정책결정자들과 선이 맞는 중국 관리들은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석유나 식량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고 칼린 교수는 밝혔다. /연합뉴스

브라질 18세 모델

‘거식증’ 사망 파문

‘말라깽이’ 선호 논란 확산

브라질에서 올해 18세의 여성 모델이 지난 다이어트에 따른 거식증 증세로 사망하면서 최근 유럽 지역에서 일었던 ‘말라깽이 모델’ 논란이 브라질에서도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거식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로 병원 치료를 받아 오던 모델 아나 카롤리나 레스톤 마칸(18)이 전날 심한 고혈압과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인 카롤리나는 어릴 때부터 일류 모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파울루 주에서 열린 한 모델 선발대회에 나가 입상한 것을 계기로 13살 때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등 모델계에서는 유망주로 인정받았다.

카롤리나는 그러나 모델 사회 특유의 치열한 경쟁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난 다이어트 요법을 사용하면서 건강을 크게 해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美 거주 한인 124만명 평균소득 4만 7천弗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이 124만명을 넘어섰고 가구당 평균 소득은 4만7천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미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은 모두 124만6천240명이고 이중 시민권자는 약 64%인 80만6천974명이었다.

경제력 조사에서 가구당 평균 소득은 4만 7천765 달러였고 전체의 47.2%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선 아래의 생활자는 약 11.2%였다. 또 16세 이상 한인 가운데 실업률은 3.3%였고 이혼율은 5%, 별거율은 1.2%로 각각 나타났다.

이밖에 전체의 53.5%가 학사 이상의 고학력자였고 청소년 가운데 칼리지 이상의 대학 재학생이 43.4%나 됐으며 각 가정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20.7%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日 ‘군국주의’ 부활하나

‘애국심 강화’ 교육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의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5일 야당의 불참 속에 중의원 특별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6일 본회의 가결에 나선다.

1947년 공포된 일본 교육기본법은 패전의 산물로 ‘개인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일본 교육의 헌법으로 불려왔다. 제정된 뒤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으며 개정 시도는 ‘금

기’의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군국주의 낡은 일용 ‘교육칙어’ 부정의 산물=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됐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반성에서 만들어진 헌법 정신의 ‘평화주의’의 이념 실현을 기치로 제정, 헌법과 함께 ‘전후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불렸다.

11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패전 때까지 일본 교육을 지배하며 ‘신민(臣民)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하며 국가,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教育勅語)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주의를 전면 반영했다.

◇개정안은 ‘애국심’ ‘전통’ 중시=‘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공공의 정신에 기초해 주체적인 사회의 형성에 참가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그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국가주의’ 교육’ 심화 우려=아베 정권은 이른바 ‘아름다운 국가’의 실현을 주장하며 집권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 국가를 중시하는 ‘공공의식의 함양’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연합뉴스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56명
KPA회원 2006년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량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 6개월학원제 / 1년 학원제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기초영어 모두 수강 가능
- 2개월 종합반-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기초영어 수강
1개월 무료 동영상제공(화면제) • 전용지습실 사용 가능
정독서실, 고사원 할인 혜택 • 사물함 무료사용 가능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특강수강 • 심층반 신설 및 수강
매일 실전모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전문 김재규 교수	형법 조태업 교수	형사소속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평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김지선 교수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쉬운것!

교정공무원
시책복지직
소방공무원
보호관찰직
세무공무원

개강 12월 1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 - 김영

호남유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대비강좌
NEET/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편입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약대, 한외대편입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편입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편입학원 동부경찰서 개강:11월1일 ☎ 227-8088

ECOLO www.ecolo.co.kr

쓸수록 남는 전기온풍기 - 에콜로
올 겨울, 난방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ISO 9001 KETNET인증 ISO 17776-6001

3단계 공기청정 시스템 신개념 금속 PTC히터 스텐의 탁월한 내구성 감각적인 디자인

지역총판 및 대리점모집 (주)케이에스엠 032-561-1110 www.ksmw.co.kr